

낙농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연수



홍 옥 련 _ 경남 함안 태영목장

며칠도 힘든데 열흘이라는 긴 기간을 집을 비우고 연수를 간다고 생각하니 깊은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었지만 남편이 기회가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르니 꼭 갔다 오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우리연수생들은 11일, 인천 공항 옆 월드 게이트라는 건물에서 연수사전교육을 마친 후 하룻밤을 묵고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다. 시내전체가 문화 유적지라는 말이 실감났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찬사가 절로 나왔다. 같이 오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다.

그 다음날 헨스로 이동해서 치즈를 생산·가공하는 직판농장을 견학했다. 농장주의 말이 처음에는 치즈를 시장에 내다 팔까도 생각했는데 시험장과 상인들을 이용하고 조리사들과 요리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치즈를 알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전량판매를 한다고 했다. 자기만의 치즈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 끝이 보이지 않는 초지와 그 위에 뛰노는 우리네 소와 똑같이 생긴 홀스타인종과 방목장, 잠시 우리 집에 두고 온 젖소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EU연합이 생산단가를 올리기 위해 꺾기대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인지 조사료 포에 말라있는 옥수수 또한 안타까웠다.

프랑스는 5,500만 ha에 달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서양 정면과 지중해에 인접하여 농업에 적합한 기후조건, 다양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엔실리지가 그냥 덮어만 놓았는데도 2차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습하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후조건이 낙농을 하기에 더없이 부러웠고 또한 평균 농지는 45ha라고 했다. 우리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 면적이다. 그렇지만 사양관리는 밀집사육을 하면서도 사계절기후에 맞춰서 하는 우리네가 더 우수하다고 자부심 또한 가질수 있었다.

그 다음날은 농업회의소를 방문해서 프랑스 낙농전반에 대한 얘기, 낙농가 운영의 3가지형태 ①개인 농가 ②부부 농가 ③GAEC(가족형 영농



조합법인) 목장경영관리(회계, 장부, 경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기록하는 것은 모든 소가 태어나는 기록, 질병치료 기록 등 우리네와 비슷했지만 육성우의 몸무게를 1년에 4번 측정해서 사료조절(급여단계), 착유조절, 성장 과정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수정도 적합할 때 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오후에 간 농장도 기록과 회계, 경영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농장도 기록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마트에 갔었는데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마트에 1/3 정도가 유제품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우리네 마트 귀퉁이에 조그맣게 진열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가 되어 한없이 부럽기도 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을 꿈꾸어 보았다.

3번째 방문한 농장은 교육농장이었는데 참 신선하게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다. 체계적으로 교육만 받는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유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또 우유가 치즈가 되는 과정, 버터가 되는 과정 등을 어린이들이 알고 싶은 과정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농장이었다. 우리도 우유를 제대로 홍보하려면 이런 교육농장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제다(GEDA)는 농사 짓는 사람끼리의 연구회로 주로 여성들의 단체인 것 같은데 도에 20개정도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여성단체가 많지만 여성 낙농인들이 주체가 되는 모임은 아직 잘 들어 보지 못한 것 같다.

나 자신이 여성 낙농인이라서 그런지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제다여성낙농단체를 잠시 부러워하면서 생각해 봤다. 헨스에서 다시 파리로 돌아와 그 다음날 아침 06:45에 출발. 형지스 국제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을 견학했다. 면적이 230ha이며 1200개 회사가 영업하고 13,000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거래액이 75억 유로라고 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은



프랑스 교육목장에서...



숙성치즈를 시식하고 있다.



휘텐탈 유가공공장의 전경

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나열된 치즈와 유제품들, 저런 것들이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로 밀려들텐데 저 규모를 어떻게 뛰어 넘을까 겁이 났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우리도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낙농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밀집사육에 사계절에 맞춰서 사양을 하면서도 유량을 높이는데 성공한 낙농인들이다. 철저한 경영과 기록으로 새는

돈을 잡아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프랑스 낙농의 특성은 자기네들도 쿼터제가 생기면서 잉여우유를 교육농장이라든지 치즈직판농장을 경영하면서 모자라는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 휘텐탈 유가공장(Molkerei Huettenthal)을 견학했다. 지역에 있는 20농가에게 일반평균보다 17% 유대를 더 주면서 농가와 쿼터제에 따라 계약해서 양만큼만 가져와서 가공한다고 했다. 그중 99%는 세계 특성화가 일어나면서 지역특성화가 일어나 우유는 그 지역에서 다 소비하고(지산지소;地產地消) 1%는 가치(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유명백화점 문헌에서 판매하는데 이윤은 없다고 했다. 아직 우리 목표는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지 않아서 그런지 가슴에 확 와닿진 않았지만 만약에 앞으로 잉여우유가 남아돈다면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간 곳은 Q-land 낙농가(Karlshof-Robdorf)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농장이었다. 30억을 투자해서 일부전기(15시간)는 자기네가 쓰고 나머지는 전력소에 한화 40원에 판매한다고 했다. 우유생산(연 220만ℓ)을 통한 수입보다도 바이오가스를 생성하는 수입이 더 많다고 했다. 골칫거리인 분뇨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개인의 농가가 전력소에 판매한다니 참 대단하다고 여겨졌고 농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경영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우리도 투자비가 막대한 개인이 할 수는 없다치더라도 요즘 농촌에 몇 개의 마을 단위별로 지원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처럼 낙우회라든지 한 시군에라도 정부지원을 해준다면 농가도 살고 전기도 만들고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다음날, 오브벨트 교육농장을 견학했다. 담당자 Mrs. Anette Mueller-Clemm 말씀이 대학 졸업 후 교육에 낙농을 접목시키는 생각을 하고 남슈파트 귀족이 갖고 있던 땅에 주민들과 결정하여 농업관련, 장애인 관련된 산업을 들여왔다고 했다. 주식회사처럼 소속감은 있지만, 생산하지는 않으면서 교육적인 것만 한다고 했다.

헤센 주(Hessen)에서 시도하는 교육농장 프로젝트로 초등학생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시작했고 자연과 농업, 인간과의 연관성을 아이들, 청소년에게 전달한다고 했다. 학교와 교육장을 연결시켜 끌고 가고 프로젝트를 할 때 나이도 고려해서 나이가 높아감에 따라 프로그램이 라든지 그런 것도 눈높이에 맞게 한다고 했다. 먼저 느끼게 해주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교육하고 토론하고 교육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을 제작하듯이 호기심을 유발해서 교육을 이끈다고 했다. 교육농장주의 자질은 첫째, 정말 하고 싶어야 되고 둘째, 아이디어가 있어야하고(교육적) 셋째, 아이를 접근해서 끌어내야하고 넷째, 자본(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육자의 자세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수교육을 마치고 유럽이 부러운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삶이 더 아름답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프랑스·독일을 연수하면서 강대국들의 낙농흐름을 느낄 수 있었고 멀게만 느껴지고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교육농장 사업을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하얀 도화지에 진짜 조금이나마 스케치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유럽연수 이후 나는 청소, 정리정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금씩 계획을 세워 깨끗하게 정리하고 향기나는 꽃도 한 송이 한 송이 심으면서 젖소를 키운다는 곳, 낙농을 생각하며 소비자가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곳으로 여기지 말고 조금은 향기가 있고 발길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기억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또한 축산(낙농)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3W:①Wife ②Water ③Way 라고 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했다. 크게 눈에 띄게 변화하진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나아가다보면 나중에는 나의 길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언제 전국 곳곳에 골고루 낙농을 하는 여성들이 만날 기회가 잘 있었던가. 모두들 나 자신만 아픔이 있는 것 같고 나 자신만 가슴에 한이 있는 것 같아도 다 내어놓으면 똑같은 걸. 이 아름답고 귀한 인연을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모두모두 정말 정말 사랑한다.♥♥♥♥♥

♥♥♥♥☺